

한양대학교

오라클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 교육으로 융·복합 인재 양성

“한양대학교는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경영대학의 특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융·복합 인재 양성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 장석권 교수/경영대학장, 한양대학교



www.hanyang.ac.kr

회사소개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www.hanyang.ac.k

산업군

Education & Research

연매출

US\$14 Billion

직원수

7,114명

도입 제품

- Oracle Mobile Cloud Service

도전 과제

- IT 비전공자인 경영대학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도입 효과

-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2개의 교과 과목 개설함으로써 경영대학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역량을 강화시켰다.
-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도구들이 빌트인 돼있고, API 설치, 환경 설정,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시간 등을 단축시켜 IT 비전공자들도 쉽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활용해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 경영대학에서 이공계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전공 및 비전공 학생들 모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바일 환경을 통해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높이고 교수들은 쉽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성화 사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기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한양대학교, 오라클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무 역량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

한양대학교는 22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대학이다. 한양대학교는 최근 시작한 경영대학의 특성화 사업에 따라 경영대학에서 자연계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인문·자연계열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2가지 교과 과목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차별화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은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도입을 결정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 교육은 경영대학 학생들이 이공계 역량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구축 과정(Execution)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한 2개의 교과 과목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7개월 간의 과정을 거쳐 2017년 6월 첫 수업을 시작했다.

파트너사(Partner Involvement)

(주)포스젠 (POSGEN)

오라클 파트너인 (주)포스젠은 한양대학교가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교과 과목을 신설하고 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및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포스젠은 오라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을 도왔다. 또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수업 진행을 지원했다.”